

세계와 삶 잇는 ‘포용디자인’ 공존의 길 향하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작품 발표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제) 광주비엔날레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작품을 발표했다. 올해 비엔날레는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 네 가지 관점에서 ‘포용디자인’을 펼쳐낸다. 이는 디자인이 우리 주변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양한 삶의 조건을 포괄하는 방식이자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배려의 실천임을 말해준다.

보행 보조기기 ‘롤레이터’부터

이동형 병원까지

4개 전시관 따라 펼쳐지는

연결·배려의 디자인



최수진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 태동하고 발전해 온 유니버설 디자인과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을 더욱 확장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역할로서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영국, 미국,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디자이너와 기관이 참여해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는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4개의 전시관은 포용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주제별로 담고있다. 다음은 각 전시관별 대표 작품 소개다.

1 전시관: 포용디자인과 세계
영국 왕립예술대학 헬렌 합턴 센터가 출품한 ‘롤레이터(Rollater)’는 전동 스쿠터와 밸런스 보드 기능을 결합한 보행 보조기기다. 안정된 형태와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이 제품은 노약자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 전시관: 포용디자인과 삶
미국의 디자인 기업 스마트 디자인의 대표작 ‘옥소 굿그립 감자칼(Oxo GoodGrips Potato Peeler)’은 관절염을 앓던 가족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사용자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고려한 그립감과 기능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모든 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다.

4.

3 전시관: 포용디자인과 모빌리티
KAIST가 출품한 ‘볼륨 스퀘어(Volume Square)’는 특수 재난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모바일 팝업 병원이다. 전쟁, 재난, 감염병 상황 등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의료공간으로 노약자, 장애인, 고립자 등 모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시스템을 구현했다.

4 전시관: 포용디자인과 미래
디자이너 다니 클로드의 ‘세 번째 엄지손가락(Third Thumb)’은 손에 추가로 장착하는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이다. 새끼손가락 아래에 부착해 발가락 움직임으로 제어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용자의 신체 능력을 확장하도록 고안됐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캠퍼지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실험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전시 주제 ‘포용디자인’과 연계한 심포지엄 및 실험적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8월30일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는 포용디자인 전문가, 디자이너,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대에 유효한 포용디자인의 전략과 역할 등을 논의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제품, 공공, 그래픽, 인터랙션,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도 열린다.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인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결과물도 선보인다.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이용객 분석과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번 작업에는 광주·전남북·제주 지역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누구나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제시한다. 전시 기간 비엔날레 3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수진 총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단순히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자인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포용디자인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8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나주 청년작가 7인 ‘빛나는 시작’ 기획전

30일까지 나주정미소 작은미술관서

청년 시선으로 본 삶·지역 예술 조명

나주시 청년작가 기획전(展) ‘젊은 모색 2025 빛나는 시작’이 오는 30일까지 나주정미소 내 작은미술관과 참새방앗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 7인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지역과 예술, 그리고 청년의 삶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다.

‘빛나는 시작’이라는 전시 주제는 모든 창작이 작고 소박한 출발에서 비롯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적 비전이 내재해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청년 예술의 현재를 성찰하고 나주 미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기획됐다. 참여작가는 광영선, 권예솔, 이유빈, 장세현, 장유리, 정송희, 최찬 등 7명으로 회화,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동시대 감각과 내면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광영선 작가는 변화하는 나주 원도심의 풍경을 흑백 사진으로 기록하며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정취를 소환한다. 권예솔 작가는 선인장을 통해 고립과 회복이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이유빈 작가는 섬이라는 이미지 안에 불안과 생존의 감정 흐름을 담고 장세현 작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간과 기억의 서정을 표현한다.

장유리 작가는 영상 매체를 활용해 감정의



광영선작 '기록'

잔상과 회복의 서사를 전하며 정송희 작가는 신체를 중심으로 한 감정의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드러낸다. 최찬 작가는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감지되는 감각들을 회화로 표현하며 쉽고 치유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번 전시는 청년 작가들의 창의성과 실험 정신을 조명하며 지역에 뿌리를 둔 예술이 가진 생명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술적 모색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이 전시가 지역문화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명규 나주 작은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 작가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감정, 기억과 치유를 아우르는 예술의 언어를 통해 나주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빛나는 시작이 지역 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조성 방안은

23일 DJ센터서 문화도시 이슈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등 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6차 문화도시 이슈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다.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광주의 문화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담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역 문화 전문가, 시민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안과 과제를 공유한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기초발표를 맡아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공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연계 전략을 조망한다.

발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국회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유지, 광주 역사문화

자원과 AI 기술의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화, K-컬처 기반 글로벌 문화도시 실현 등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성사업 고도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신설 필요성도 논의된다.

토론에서는 ▲김성배 전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의 ‘광주 공약과제 및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장의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의 ‘국가 주도 고도화 및 국립문화시설 유치 전략’ 발표가 이어진다.

류재한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역 고유 문화의 발굴과 세계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광주는 AI와 인문학, 예술이 융합된 미래형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